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인천국제클라운 마임 축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인천국제클라운 마임 축제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시 남구 인하대 일대에서 성대하게 벌어졌다. 클라운 마임 축제는 지난 1995년 클라운마임협회와 극단 마임, 소극장 돌체가 세계 각국의 마임, 클라운 마임, 너버벌 아티스트들을 초청, 시작됐다. 올해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인도, 네덜란드, 독일, 한국 등 세계 각국 100여 명의 마임이스트가 초청됐다. 축제의 장소 인하대 본관 공연장과 하이테크관, 학산소극장과 시연소극장 등 여러 곳에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마니야를 위한 무대에서부터, 가족이나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물이 무대에 올랐다. 체험 마당도 펼쳐졌다.

문화 예술계 의견 수렴 위한 릴레이 포럼

인천문화재단이 내년에 벌일 사업에 대한 문화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벌이고 있다. 이번 릴레이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0월 6일 첫 포럼을 시작해,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인천지역내 사회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자율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고 그 토대를 닦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 내 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한편, 각 단위의 다양한 관점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럼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관점 검토, 인천 내의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사례발표, 인천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사례, 인천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사례, 인천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정리 등 5가지 대주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을 벌인다.

사진집 『인천지하철 이야기』 출간

인천시민의 발인 인천지하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인천지하철의 주변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 『인천지하철 이야기』가 나왔다. 다큐사진작가 최용백 씨를 비롯해, 김석창, 류미현, 차선홍 등 인천사진연구회원들이 카메라 앵글을 잡았고, 수필가 신은주(인화여고 교사) 씨가 인천지하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인천지하철은 1993년 7월에 착공, 우여곡절을 겪으며 6년 3개월 만인 1999년 10월 시민의 발로 첫 걸음을 뒀다. 1899년 국내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들어선 이후 100년 만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인천지하철이 탄생하기까지 오랫동안 불편을 참아낸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또 출발점이자 차량의 종점인 규현역부터 종점인 동막역까지 22개의 지하철역사를 둘러싼 주변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지하철이 달리는 지하공간과 그 위 지상의 풍경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다.

수채화가 우순옥의 첫 개인전

수채화가 우순옥의 첫 개인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 대전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작가는

‘겨울·그리고·봄’을 주제로, 겨울과 봄으로 이어지는 사이 아름다운 우리 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선보였다. 우 작가는 인천한국수채화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초대전과 협회전 등에 참여했다.

해원갤러리에서 열린 제2회 다다전

인천의 해원갤러리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제2회 다다전)을 열었다. (다다전)은 다인다색의 다다(多多)라는 뜻과 D-D(Dynamic Diversity 역동적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장르로 모여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 달리, 다다전은 미술 전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홍윤표, 이상영, 옥계, 이시원 등 55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해원갤러리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이 기증한 소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문을 연 해원갤러리는 남구 주안4동 신기사거리 인근에 있다.

경기

류주선
경기일보 기자

성남아트센터 개관

성남시민의 새로운 문화명소가 될 성남아트센터(사장 이종덕)가 지난 10월 14일 신도시 분당에 개관했다. 분당구 아탑동 1만 3천여 평의 녹지에 도·시비 1천 6백여 억 원의 예산으로 지은 아트센터는 3개의 공연장과 미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 공간과 넓은 광장이 특징이다. 운영은 시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에 위탁해



다. 시설을 보면 공연장으로 오페라하우스(1천 804석), 중극장 규모인 콘서트홀(994석), 소극장 격인 앙상블 시어터(398석)가 들어섰다. 미술관은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본관(250평)과 2개 전시실로 구성된 별관(86평)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다음날인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세계적인 공연단체와 국내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개관 페스티벌을 40일 동안 진행한다. 바리톤 마티아스 피르네, 재즈 아티스트 토마추 스타코 퀴텐, 모나코 몬테카를로발레단의 <신데렐라> 등 국내 무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공연들이 줄을 잇는다. 아트센터 측은 한국 초연과 성남 단독공연을 많이 유치해 특성을 살려나갈 계획이며 성남을 비롯 인근 용인지역과 서울 강남 일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과 같은 공연을 유치할 경우 입장료를 서울의 70%선으로 책정했다. 대중교통편은 지하철 분당선 이매역을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www.snart.or.kr, 전화는 (031)783-8000이다.

경기지역 문예회관 자체제작 북

경기지역 문예회관들이 공연을 자체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에도 세 편의 자체제작 작품이 관객의 심판대에 오른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은 대형 뮤지컬 <꼭두별초>를 제작, 지난 10월 13~15일 선보였다. 문화관광부의 지방 문예회관특별지원금 1억 9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3억 9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이 작품은 안산시의 문화역량을 총동원한 역작으로 기대이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개관한 성남아트센터(사장 이종덕)는 올 연말까지 40일에 걸쳐

진행하는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로 대형 오페라 <파우스트>를 이달 24~27일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린다. 샤를르 구노의 <파우스트>는 스케일이 워낙 커 국내 오페라계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작품. 국내 오페라계의 스타 연출가인 이소영 씨가 연출을 맡고 해외에서 활동중인 역량있는 한국인 성악가를 총출동시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약 10억 원의 제작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페라 <파우스트>가 국내 음악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 경기도문예회관협의회(회장 소홍삼) 역시 7개 회원단체가 참여한 록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달 말 초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홍사중)은 지난 봄 10억 원의 예산과 러시아 스태프를 초빙, 태권도 퍼포먼스 <더 문>을 제작, 발표했다.

강원

홍호선
강원일보 기자

제6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제6회 신사임당 미술대전에서 한국화부문의 '서민들의 옛고향'을 출품한 윤운석(52·전남 장성군 장성읍)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강릉시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주최하고 신사임당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의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손남이(여·38·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씨의 서양화 <여춘풍경 I>, 이기람(29·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씨의 조소 <과거회기>, 이정은(여·25·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씨의 공예 <만추>, 이덕희(33·대전시 서구 관저동) 씨의 서예 <중용구>, 이용자(여·56·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씨의 문인화 <석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710여 점이 출품돼 대상 1점, 각 부문별 최우수상 5점(디자인·한국화 제외), 우수상 26점, 특선 98점, 입선 321점 등 모두 451명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는 각 200만원 등 총 3,000여 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강릉문화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입상작품 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강릉문화예술관 대전실과 소공연장에서 1, 2부로 나눠 열리며 개막식은 2일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다.

2005 강원문인대회

올해 강원문학계를 결산하고 재조명해 본 2005강원문인대회 및 강원문학 35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월 15일 오후3시 춘천시 삼천동 귀빈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도문인협회(회장 조규영)가 주최한 이날 문인대회에서는 제24회 강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시부문 전태규, 소설부문 최종남, 시부문 장병훈, 시조부문 김양수 씨 등 4명에게 시상했다. 이와 함께 제5회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받는 춘천여고출신의 문진영양을 비롯 14명의 학생에 대한 시상식도 했으며 이어 횡성출신 조대현 한국아동문학인협회장을 초청해 문학강연을 가졌다.

오페라 봄봄 유럽 순회공연



한국의 해학미와 향토미를 보여주는 소설가 김유정의 『봄·봄』이 오페라의 본고장 동유럽 무대에 올려졌다. 강원기원오페라단(단장 김기원 관동대 교수)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불가리아의 소피아 등 3개국 4개 도시의 국립오페라극장을 순회하며 오페라 <봄·봄> 공연을 펼쳤다. 오페라 <봄·봄>은 강원기원오페라단이 지난 2000년부터 작업을 시작해 지난달 총무아트홀 개관기념 초청공연까지 모두 19회 선보이며 5년간 다듬은 작품. 이번 유럽 순회공연에서는 어리숙한 데릴사위 주인공 '나'와 열여섯 살 점순이가 보여

주는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과 의뭉하고 교활한 장인의 모습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연출 및 총감독을 맡은 김기원 단장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유럽에 초청돼 한국의 문화사절단 역할과 함께 강원도의 염원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청

이현숙
충청투데이기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획전

옛 청주연초제조창 원료창고가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청주시상당구내덕동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 1층에 위치한 창고건물은 3,300평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00평 공간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비엔날레 10개 전시관 중 3개 전시관이 꾸며진 이곳은 <기획전>을 비롯해 <지역작가전>과 <생활공예전>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이 전시장이 눈길을 끈 것은 폐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특히 내부 천정 높이가 7미터에 달해 대형 설치작품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는 메머드급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기획전>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선보인 이번 기획전은 세계 공예 전시답게 ‘공예’라는 말로 이해해온 종전의 패턴은 철저히 배제된 채,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의 설치물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새문화공간, 갤러리 흥 개관

한국화가이며 충북대 미술과에 재직하고 있는 흥병학 교수(63)가 갤러리를 만들었다. 화랑명칭은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 흥’.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수경빌딩 1층에 위치해 있다. 화랑규모는 45평 크기의 전시공간과 개인스튜디오를 갖췄다. 지난 10월 4일 문을 연 갤러리 흥은 상업성을 떠나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몸담아 온 전문작가가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 갤러리 흥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개관 특별전을 열었다. 한국 현대미술의 전통을 잇

고 우리 미술발전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건립

청주지역에 미술스튜디오가 개관될 예정이어서 창작활동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청주시는 올 초 문화관광부로부터 미술창작스튜디오 건립 지원대상에서 선정돼 국비 1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합해 총 40억 원을 들여, 11월 착공,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8번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부지 100평, 건물 약 710평 규모로 건립되는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하 1층, 지상 2층 크기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16평 규모의 창작공간실과 150평 규모의 전시관 1개가 들어선다. 각 분야별로 작업공간과 공연, 강좌,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을 확보,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작품 전시실을 갖춘 종합공간 스튜디오로 조성된다. 이 밖에 80평 크기의 교육실 1개, 옥외작업장 1개, 수장고 1개 등 작가 편의실과 사무실이 꾸며진다.

대구·경북

최두성
매일신문 기자

대구국제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기존 예술의 틀을 깨고 ‘눈으로 보는 음악’, ‘귀로 듣는 전시’를 추구하는 제3회 대구국제뉴미디어 아트페스티벌이 지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무한대로 확장되는 디지털의 세계를 조명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스펙트럼’을 주제로 뉴미디어 아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가 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쌍방향 콘서트인 ‘뉴미디어 콘서트’와 ‘뉴미디어 설치’ 등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원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악들을 소개하고, 어쿠스틱 악기의 협연이나 무용과의 결합이 시도된 것도 특징. 전시관 앞 광장에서 선을 보인 비주얼 퍼포먼스 아티스트 최종범 씨의 오프닝 퍼포먼스 ‘일렉트릭 파워’와 소극장에서 진행된 미디어음악을 전공중인 대학원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가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쌍

방향 디지털 미디어 작품 8점이 전시된 뉴미디어 설치미술전도 관심을 모았다.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2005

대구가 색에 빠져들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2005(대구거리축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구 지역 곳곳에서 열려 도시의 색을 입혔다. 이번 축제는 대구시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녹색 카펫을 깔 가운데 열린 록 콘서트를 비롯, 40여 명의 디자이너와 120여 명의 패션모델이 참여한 컬러풀 패션 퍼레이드, NGO행사, 26개 시민공모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한마당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시민들은 대구가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속 염원들을 페스티벌 현장에서 마음껏 발산했다.

2005 대구·상해국제예술교류전

한국과 중국의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교감을 나누는 <2005 대구·상해국제예술교류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6~9전시실에서 열렸다. 지난 96년부터 매년 대구와 상해를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는 교류전은 올해로 10년째. 이번 교류전에서는 대구예총 산하 단체인 건축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추천 작가의 엄선된 작품 60여 점을 비롯해 상해대학 건축학 교수와 학생들의 건축설계작품, 회화, 사진 작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대구와 상해 간의 국제교류전은 두 나라, 두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서로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 교감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대구와 상해의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독특한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동양적인 두 도시 간 문화·예술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윈-윈’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오페라축제 개막

올해로 3회째 접어들 <2005 대구국제오페



라축제)가 지난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시작으로 한달 동안 대구오페라하우스, 봉산문화회관 등에서 열렸다. 베르디 살레르노 시립 극장과 대구오페라하우스 공동 작품인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시작으로 개막된 축제에서는 10월 29일까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비제의 <카르멘>, 창작 오페라 <춘향전>, 플로토브의 <마르타> 등 7개 작품이 축제기간 동안 잇따라 무대에 올려졌다. 또 일반인들이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국악 앙상블과 브라스 앙상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됐다. ‘찾아가는 오페라’, ‘함께하는 오페라’ 등 부대행사들도 오페라 하우스 야외무대 등에서 잇따라 열렸다.

경남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경남 도전 고병희 씨 작품 등 대상

제28회 경남도미술대전에서 한국화 부문에 고병희(진주시 칠암동) 씨의 <항해를 위한 휴식>이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8개 부문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는 서양화 부문 김우연(진주시 평거동) 씨의 <지워진 세상>, 공예 부문에 황은하(함안군 가야읍) 씨의 <풍경>, 조소 부문에 박낙서(창원시 사림동) 씨의 <여정>, 서각 부문에 이봉진(창원시 남양동) 씨의 <상선약수>, 디자인 부문에 홍보근·박형준(진주시 평거동) 씨의 <진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캘린더 디자인 제안>, 서예 부문에 이정림(창원시 상남동) 씨의 한문 서예 <조위 선생 시>, 문인화 부문에 김영

자(마산시 내서읍) 씨의 <묵난>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지회장 최명환)는 지난 10월 10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제28회 경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182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8명의 대상자와, 우수상 10명 특선 101점, 입선 405점 등 총 524점을 선정했다.

경남학생서예대전 백기영 양 대상

제15회 경상남도 학생 서예대전에서 창원 명지여자고등학교 3학년 백기영 양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각 부문 최우수상은 한글 부문에 신민욱(밀양 밀성정보고), 남광우(창원 남양초등), 한문 부문에 박태경(진주중), 김다인(함양 위성초등), 문인화 부문에 구지원(창원 명지여고) 변정아(진주 신안초등) 학생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한글 부문에 김한웅·이지현·오정택·이해인, 한문 부문에 이경준·조은영·김옥진·이삼미, 문인화 부문에 송유나·탁아영·정인혜·김이라 학생이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한글 한문 모두 서체별로 고루 출품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고 문인화(사군자)는 농담의 세밀함이 기성 작가 못지 않았으며, 소재의 다양성과 기본기에 접근하려고 한 노력이 엿보였다. 다만 낙관까지 신경을 써야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한글, 한문, 문인화 구분 없이 낙관처리가 미흡한 작품들이 많이 보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다양한 도립미술관 연계전

경남도립미술관(원장 황원철)은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연계전으로 <신옥진 기증작품전>, <설치미술-시각의 해체>, <움베르토 바카(Humberto Baca) 판화전>을 마련한다. <신옥진 기증작품전>은 1975년부터 부산에서 공간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신옥진 씨가 2002년부터 8차례에 걸쳐 기증한 작품, 서양화 56점, 한국화 9점 조각 1점, 드로잉 13점, 판화 17점, 공예 3점 서예 1점 등 1950년대부터 2002년까지 유형별, 시대별 다양한 양식의 작품 100점이 제4·5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와 함께 제1·3전시실에서 열리는 <설치미술-시각의 해체>는 디지털시대에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설치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작품경향을 접함은 물론 예술학적 차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서, 정상급 현대미술작가 강숙자·김지희 등의 독창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평면에서 입체로, 입체에서 상호 교환하는 자유로운 공간조형을 구축하는 설치형태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2005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1997년 이후 경상남도와 해외자매주인 멕시코 할리스코주와의 미술교류 사업을 통해 우호증진과 친선도모를 위한 <움베르토 바카(Humberto Baca) 판화전>을 제2전시실에서 함께 마련한다.

고향 통영서 윤이상 10주년 행사

통영 출신 작곡가 윤이상(1917~1995)선생의 10주기인 11월 3일을 앞두고 선생의 고향인 통영과 서울 등에서 10주기 추모 행사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통영국제음악제의 경우 지난해 개막축제(3월 22일~27일), 시즌음악회(4월, 6월, 8월), 폐막공연(10월 16일)등으로 나뉘어 열렸지만 윤이상 선생 10주기인 올해는 가을 시즌 공연을 별도로 마련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윤이상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2005통영국제음악제 가을시즌이 마련된다. 특히 가을시즌 공연기간 중 11월 1일부터 3일간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문화>를 주제로 윤이상 국제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윤이상, 서구, 독일의 음악생활 그리고 오페라 열광, 윤이상과 유럽예술의 동질성기능 등으로 3가지 섹션 별 국내외의 학자들이 윤이상의 창작세계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한다. 또한 선생의 기일인 11월 3일은 윤이상의 밤을 마련해 바이올리니스트 콜리아 레싱, 오보이스트 사토키 아오야마, 라르푸라르 앙상블, 현대성악앙상블, TIMF앙상블 등이 윤이상의 작품 Memory(1974), Kontraste(1987) 등을 연주하게 된다. 또한 지난 3월 창립된 윤이상 평화재단(이 시장 박재규)도 윤이상 선생의 10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고기화
국제신문 기자

뉴커런츠상에 중국 교포감독의 <망중> 수상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10월 6~14일)의 유일한 경쟁부문인 최우수 아시아 신인작가상(뉴커런츠상)은 재중 동포감독 장률의 <망중>에게 돌아갔다.

또 '특별언급'에는 중국 완마 차이단 감독의 <성스러운 돌>과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선정됐다. 와이드 앵글 부문에 초청된 단편영화 중 최우수 작품에게 돌아가는 선재상은 정용주 감독의 <처용의 다도>와 김영남 감독의 <뜨거운 차 한잔>이 공동수상했으며, 한국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인 윤파편드는 <고레엔 2495>(하준수 감독)와 <안녕 사요나라>(김태일·카토 쿠미코 감독)가 수상해 각각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리움' 건립 본격화

미래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이끄는 '엔진' 구실을 할 부산영상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PIFF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부산영상센터 부지에서 '두레리움' 건립기념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두레리움은 총 3730평 부지(지하주차장 제외)에 국비와 시비 등 468억 원을 들여 각각 200~1,200석 규모의 상영관 6개관, 영상문화관, 전시장, 시네마테크, 시청각실 등 시설을 갖춰 오는 2009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두레리움'은 '(다) 함께 (영화)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다.

부산영상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PIFF의 전용상영관. PIFF는 출범 뒤부터 전용극장이 없어 해마다 부산 시내 극장을 영화제 상영

관으로 확보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PIFF가 부산시와 함께 국제초대규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계작 선정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설계공모에 참가한 건축가는 버나드 추미(스위스), 콧 히멜브라우(호주), 에릭 반 에게라트(네덜란드), 스티븐 홀(미국), 텐 아키텍츠(멕시코), MVRDV(네덜란드), 하이키넨 코모넨·마르쿠 코모넨(핀란드) 등 모두 7명(팀 포함)이다. 이들은 국제적 명성의 건축가들로 어떤 작품이 선정되든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이 부산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영화제와 부산시의 설명이다.

제10회 PIFF 총 관객 19만 3천명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총 관객은 19만 2,970명, 좌석 점유율은 6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9회 영화제는 총 관객 16만 6,164명, 좌석 점유율은 84.8%였다. 관객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좌석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보다 상영관을 크게 늘려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겠다는 PIFF 측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부문별 좌석 점유율은 개·폐막작과 마스터 클래스가 100%, 새로운 물결 77%, 크리티크 초이스 73%, 새로운 물결 10년 그리고 현재 69%, 영국영화특별전 67% 등을 기록했다. 해외 게스트는 54개국 652명이었다. PPP(부산프로모션플랜)에는 30개국 320여 개 업체가 들어왔다. 세미나 2회, 오픈토크 1회, 야외무대인사 15회, 오픈콘서트 7

회, 기자회견 9회가 각각 열렸다.

요산문학제 부산 일원서 개최

부산지역 최대 문학축제인 제8회 요산문학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낙동강과 부산민주공원 등에서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특별히 '향파와 요산, 지역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를 테마로 잡았다. 한국의 대표적 인문인인 요산 김정한과 향파 이주홍 선생의 정신을 동시에 기려보자는 뜻에서였다. 부산민주공원 중강당에서 지난 10월 22일 열린 '부산지역문학의 뿌리를 찾아서—향파와 요산'을 주제로 한 문학심포지엄에서는 원로 소설가 최해군 선생이 첫 발제자로 나서 '내가 본 향파와 요산—인간적인 면모를 중심으로'를 강의했다. 이어 문학평론가 남승우(부경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교수가 각각 '요산과 향파의 문학세계', '일제, 해방공간의 향파와 요산'을 강연했다. 또 김상욱(춘천교대), 하정일(원광대) 교수가 각각 '향파의 아동문학세계', '요산의 소설세계'를 주제로 부산문단의 '양대 산맥'의 특징적인 문학세계를 짚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에는 경성대학교 소강당에서 '시·소설 퍼포먼스와 사투리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시와 소설 작품을 춤·동작·영상 등과 연결시켜 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문학을 외면하는 디지털시대의 중고생과 대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요산문학제의 하이라이트인 '낙동강 뱃길을 따라가는 요산문학기행'이 개최됐다.

각국 전통 연희극 APEC 나들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문화 공연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10월 3~19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24회 정기공연 겸 2005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7월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프랑스 극단 보이스오프의 '작은 황소들, 작은 서커스'는 다미앙 보베의 1인극. 어린이들을 주 관객으로 하는 이 작품

은 일상용품인 우산, 포도주 병뚜개, 냄비 등이 광대의 손놀림, 발놀림에 의해 코끼리, 호랑이로 둔갑하는 기상천외한 서커스를 보여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카모토 나카토시(일본)의 1인극 <토사겐지>는 방탕한 생활 끝에 눈 먼 거지로 전락한 소 거간꾼의 이야기. 올해 74세의 사카모토는 이 작품을 1000여 회 무대에 올렸을 만큼 '장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받았다.

부산시립극단의 <길 끝에서>는 창작극 위주의 공연을 올렸던 역대 페스티벌의 작품과는 달리 에바 프란키의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손기룡 씨는 "지역 연극계에서 창작극을 발굴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APEC 개최를 기념하는 의미로 창작극을 배제시켰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참신한 창작극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재미화가 김보현 초대전

뉴욕에서 활동 중인 김보현(87 미국명 김포, 전 조선대 교수)화백의 화업인생 50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다.

조선대 미술관(관장 박일재)은 개교 59주년을 맞아 김보현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특별기획전 <Po Kim — Nostalgia in the Paradise>를 지난 9월 28일~10월 15일까지 개최했다. 사실 이번 전시회는 김 화백에 '큰 빛'을 지고 있는 조선대 입장에서 보면 개교 59년 기념 행사라기 보다는 '보은'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김 화백은 자신의 대표작은 물론 작가인 부인 실비아 월드 여사의 작품 등 340점(169억 원 상당)을 기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김 화백이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와 함께 조대 미술관에 기증한 컬렉션 중 일부로, 미국 정착 후 50년 간 꿈꾸었던 이상향 속에서 고국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담은 그림들로 꾸며졌다. 그의 작품 곳곳에 드러난, 파라다이스를 향한 현대인들의 열망은 초창기 그의 고단한

미국생활을 짐작케 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자연주의 계열의 구상화를 추구했던 그는 55~70년까지 당시 미국을 풍미하던 추상표현주의로 과감하게 화풍을 바꿨다. 70년대 이후 다시 구상으로 눈을 돌린 김 화백은 새, 물고기, 개, 말 등 자연의 생명체와 인간의 조화를 환상적인 색감과 필치로 표현하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 화백의 작품은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유명 미술관과 공공건물에 소장되어 있다.

2005 평화연극제

'인간과 인권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2005 광주평화연극제>가 지난 10월 4~16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졌다. 기존의 <광주공연예술축제>에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 개편한 행사인 이번 평화연극제는 침체된 지역연극의 창작의욕 고취와 연극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극단 열아리, 시민, Y, 청춘, 진달래피네 등 5개팀과 서울지역 극단 초인, E.V.E, 등 모두 7개팀이 참석해 광주 동구 궁동 예술극장과 문예정터 소극장에서 기량을 겨뤘다.

광주시립 국극단 황진이 공연

조선시대 대표적 여류문인이자 가객인 황진이의 삶과 사랑을 전통음악과 무용으로 재각색한 창극 <황진이>가 광주무대에 다시 올랐다. 광주시립국극단(단장 홍성덕)은 지난 10월 13, 14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30회 정기공연으로 창극 <황진이>를 선보였다. 창극 <황진이>는 지난해 12월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돼 아름다운 의상과 분장, 사랑과 이별이란 낭만적 주제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금강산에서도 공연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지호 유품기념관 개관

한국적 인상주의 화화의 개척자인 서양화가 오지호 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가 머물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초가 옆에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은 전체 대지 209평 위에 세워진 2층 짜리 작은 양옥집이다. 1층은 고인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된 5개의 방으로 꾸며졌다. 2층은 자료실과 영상 및 전시실로, 자료실에는 오 화백의 저서와, 그를 다룬 잡지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등이 비치돼 있다. 영상실에서는 오 화백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및 그의 작품집이 교대로 대형 화면에 상영된다. 고인이 남긴 스케치와 에스키스 작품 등도 유리 전시장 안쪽에 걸려 있다.

2005 광주음악제

민중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을 기리는 <2005 광주음악제>가 '아시아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7일 금남로 분수대 앞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주 민예총과 5 18 기념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가수 이미자, 윤도현밴드, '아시아의 야니'라 불리는 양방언, 소리꾼 오정해, 인도네시아 최고 락 밴드 슬랭크, 베트남 인기가수 톤슨, 몽골의 대표가수 바이살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총출동했다. 주제 '아시아의 메아리'는 군사패권주의와의 싸움을 통해 민주화의 열망을 실현한 '광주'를 상징하고 있다. 영화배우 오지호 씨의 사회로 이날 오후 6시 30분 막이 오른 1부 무대는 윤도현 밴드와 소리꾼 오정해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2부에서는 '아시아의 야니'라 불리며 국악과 아시아의 민속음악, 재즈와 팝,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소화해 온 양방언이 출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제13회 임방울국악제 성황리에 마쳐

제1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에 출전, 심청가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부른 김찬미(30·전북 정읍) 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국창임방울선생기념문화재단이 판소리와 시조, 기악, 무용, 농악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 9월 26~28일까지 3일 동안 광주시민회관·광주문예회관 등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75팀이나 많은 228팀의 국악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번 경연에서 무용일반부 이세라(김미숙하나무용학원) 씨 등 7명이 최우수상, 판소리 일반부 박미선 씨 등 7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북

도 휘 정
전북일보 기자

축제로 깊어지는 전주의 가을

전주의 가을은 축제로 깊어간다. 이 가을, 전주세계소리축제(9월 27일~10월 3일)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10월 1~31일), 문화의 달(10월 13~15일) 행사가 전주에서 열렸다.

〈2005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의 텃자리, 전북. 판소리를 중심으로 우리 소리와 세계의 소리가 만나는 '2005전주세계소리축제'가 '난(亂), 민(民), 협률(協律)'을 주제로 열렸다. 재난(亂)과 전쟁으로 고통 받는 세계 사람들(民)에게 화합과 평화의 소리를 통해 어울림(協律)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은 50여 개의 공식초청 공연을 포함해 모두 300여 개. 개·폐막공연과 집중기획 판소리, 국내기획초청공연, 해외테마기획, 해외초청공연, 해외기획 위매드, 축제 속의 축제 등 세대와 계층, 지역과 장르를 넘어선 소리들이 다양한 화음을 엮어 냈다. 해외음악의 경우 분쟁국가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주목한 '테마기획-전통과 전위'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축제 '위매드'를 축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새로운 시도로 큰 호응을 끌어냈다.

〈200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창암 이삼만에서 강암 송성용과 석전 황욱으로 이어지는 전북 서화의 뿌리. 전북 서단은 곧 한국 서예의 역사다. 한지가 유명하고 문필가들이 많이 났던 전북. 이 땅의 전통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지켜나고 있다. 한국서예의 세계화와 대중화 실현을 목표로 5회째를 맞는 서예비엔날레의 올해 주제는 '만남'. 장르와 장르, 젊음과 연륜, 지역과 지역, 세계와 세계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으로, 한자문화권 문화예술의 정수로서 서예의 고유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서예술을 세계에 전하고 세계의 문화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11개의 전시행사와 2개의 학술행사, 8개의 부대행사, 1개의 관련행사가 마련됐으며, 25개국 1천여 명의 작가

들이 초대됐다.

올해 서예비엔날레에서는 중국의 유정성(劉正成)이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스라엘의 벨르 샤피르(Belle Shafir)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문화의달

10월, 전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가 됐다. 문화의 달 행사가 올해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를 찾아왔다. 전통의 본질과 문화의 원형을 전주에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가기 위한 올해 주제는 '전통의 본질, 문화의 원형'. 캐치프레이즈는 '전통이 미래'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시상하는 기념식을 포함한 3개의 기본사업과 8개의 중심사업, 시민참여행사와 기타 부대행사 등,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됐던 기념식과 관련 행사가 모두 전주에서 열리고, 행사일도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역대 최고 규모가 됐다.

우리의 혼을 지켜가면서도 그동안 소외돼 왔던 무형문화재들을 초대하는 '무형문화재의 날'과 세계 전통문화도시를 초청해 전통문화 계승 노력들을 살펴보는 '해외전통문화도시 초청 심포지엄'이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았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기본 계획이 나오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전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 석정문학제

"문학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육성 테이프르만 들을 수 있는 석정의 목소리. '2005 석정문학제'는 그의 고결하고 의로웠던 문학정신과 인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허소라 제전위원장은 "나리를 잃었을 때 모국과 모국어를 지키는 것이 시인과 작가가 할 일"이라며 "본질적으로 목가시인이었지만, 어려웠던 시절 창세개명을 거부하며 죄의 그늘을 밟지 않은 석정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특강은 석정을 '목가시인'이라는 '가시면류관'에서 해방시키는 자리였다. 김윤식

문학평론가(서울대 명예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석정을 전원적인 시를 쓰는 '촛불시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참여시인인 '촛불시인'이었다"며 "'촛불'을 뒤집고 '촛불'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석정 시 내부에 잠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양 시인(우석대 교수)은 석정의 첫 번째 시집 『촛불』(1939)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 '촛불'을 주목했다. 그는 "석정은 '촛불'을 쉽게 꺼지는 약한 존재와 자기 주변만 밝히고 마는 소시민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나는 어둠을 꺼안는다'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시를 보면 '촛불'이 부정적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그 안에 석정 자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4일과 25일 우석빌딩 7층 전북일보사 회의실과 부안 일대에서 열린 '2005 석정문학제' . 석정문학회와 전북작가회의, 전북문인협회, 부안예총, 부안문인협회가 함께 한 올해 행사는 30주기였던 지난해 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석정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커졌다. '마을'과 '그릇'을 시제로 한 백일장에서는 임유진(장원) 김정경(차상) 유나영(차하) 이용호 씨(가작)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5회 혼불문학제 '혼불의 민속지적 성격 II'

최명희 대하소설 '혼불'이 문자예술의 경계를 넘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제5회 혼불문학제' . '혼불의 민속지적 성격 II'를 주제로 한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혼불」은 문화콘텐츠로서 입체적으로 조명됐다.

「혼불」의 문화콘텐츠 구축에 관한 시험적 고찰'을 발표한 안남일 고려대 초빙교수는 "「혼불」에는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적 요소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재돼 있어 다른 작품들 보다 문화콘텐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며 "「혼불」의 전체적 이미지나 형상화는 비단 학술적 결과물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그에 따른 효과적인 인지전달이 매우 중요한 기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안병섭 씨(고려대 한국학연구소)는 "「혼불」

의 방대한 민속자료 또한 대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화석화된 문화로 여겨질 수 있다"며 "단일매체가 아닌, 다중매체를 통해 「혼불」을 문화 콘텐츠로 구축,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불」의 민속자료는 대부분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이 많다"며 "특히 남원, 전주 지역과 관련된 민속자료와 전라 지역 문화의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 태 유
제민일보 기자

거리예술제·제주영화제·탐라문화제 축제로 빠져든 가을 제주

가을이 접어드는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제주에는 축제의 물결이 휩사였다.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해 거리를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제4회 거리예술제, 독립영화 축제인 제4회 제주영화제, 천년 탐라(제주의 옛이름)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제44회 탐라문화제가 잇따라 열린 것.



서막은 지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을 주무대로 해서 열린 제4회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가 열렸다. 단절의 공간의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살아있는 거리를 꿈꾸는 테러J는 바쁜 일상 속 메마르기만 했던 거리를 불거리와 웃음거리, 기발한 상상력으로 채웠다. 특히 바람 춤추는 깃발전과 일본인 부부 마임니스트 고지마야와 하토리, 유미코 등 3명이 꾸민 마임,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있다'의 콘서트, 오경현, 서승아 씨가 함께 하는 부토-〈악의꽃〉이 등이 관심을 끌었다. 이어 축제의 열기는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제주영화제가 이어받았다. '트명영화제'에서 이름을 바꾼 〈제주영화제〉는 지난 9월 30일~10월 3일

4일간 제주프리머스시네마에서 열렸다. 제주를 대표하는 유일한 전통문화축제인 제44회 탐라문화제는 지난 10월 1~6일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속으로'를 주제로 제주시 신산공원 및 도내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탐라문화제는 제주어가오제, 전국품바경연대회 등이 신설되는 한편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행사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10월 1일에는 도민의 안녕과 축제의 성공을 바라는 '기원대축제'와 신산공원 내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개막공연으로 제주도립예술단의 개막축하공연과 제주철머리당굿보존회의 시연(중요무형문화재 71호),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0회 맞은 우도 동굴음악회

동굴의 울림을 인간의 품으로 끌어당긴 동굴음악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동굴음악회는 '자연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고민하던 테너 현행복씨가 5년의 발품 끝에 지난 1997년 9월 일명 '고래코트구멍'이라 불리는 북제주군 우도 동안경굴에서 동굴음악회를 연 이래 매해 인위적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울림만으로 음악을 전하고 있다. 현씨는 10회의 음악회를 이끌어오면서 동해 천곡동굴, 태백시 용연동굴 등 곳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해왔지만 동안경굴이 가장 제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굴음악회는 연주를 기계가 아닌 동굴의 울림만으로 들을 수 있다는 특색과 함께 동굴이라는 공간은 첫 회부터 이색적인 음악회라는 꼬리표를 달며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귀리 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북제주군 하귀리리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제주대표팀으로 참가해 '귀리 걸보리 농사일 소리' (연출 한진오)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16개 시·도와 이북5도 등 21개 팀이 참가해 민속놀이·무용·농악·민요 부문에서 지역의 자존심을 내건 경연을 벌였으며, 하귀리리는 잊혀진 제주 전통민요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것은 물론 근·현대 농민들의 삶을 맛깔스럽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귀리 걸보리 농사일 소리'는 타 지역의 미곡 문화권과 달리 잡곡 문화권에 속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보리농사 과정을 재현한 작품. 하귀리 주민 70여명이 참여해 하귀리를 중심으로 북제주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보리농사 과정을 노동요와 함께 실감나게 복원했다.

제1회 제주 아시아 1인극제

〈제1회 제주 아시아 1인극제〉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청어울림마당,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간드락 소극장에서 열렸다. 아시아 1인극제는 그동안 서구 연극의 일방적인 사조에 휘둘러 독창성과 정체성을 잃어 가는 아시아 문화권 연극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확인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공주에서 시작돼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시민문화현대의 가능성을 짚어본 제주문화포럼이 그 뒤를 이어 제주에서 1회 1인극제를 열었다. 1인극제는 10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전자제를 시작으로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본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아시아 1인극인들과 풍물패 신나라과 정국철 심방, 테러J 등 도내 문화인들이 함께 한다. 부대행사로 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소민 탈 전시회가 마련된다.

이번 1인극제에는 빅 나시르의 말레이시아 전통그림자극 〈와양클리트〉, 쉬춘메이의 〈중국대목춤〉, 그리고 다나의 미국인형극 〈인형음악대〉, 오인우의 인도전통춤 〈발〉, 한 대수의 진혼극 〈길베〉 공연이 마련됐다.